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3차	일자	2021.05.24. 18:30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0	0	0	0	0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0	X	0	X	0	0	9

-개회-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5/25~27 사범대학 축제 계획중.
사회과학대학	지난주 화요일에 학생회와의 만남 진행. 속기록과 함께 결과보고 완료. 학과/부 학생자치가이드라인 제작 완료. 사회과학대학 사업공모전 진행중. 방구석콘서트 영상 게시 예정.
약학대학	5/24~28 축제기간.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중앙퍼레이드 참여중. 광주기행 영상 기재 완료. 언택트 체육대회 개최.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굿즈사업관련된 설문조사 예정중. 공학도서관 좌석 1/3 운영.
동아리연합회	

## 2 보고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총학생회실 상주 진행 중

중앙집행위원회	(집장단) 전학대회 불참 등 사유서 업로드
	(집장단) 학생총회 참여 격려 홍보 손글씨 이벤트 상품 발송예정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강의 12주차 피드백 전달, 13주차 진행 예정
	(교육자치) 다전공 자료집 배포 완료
	(교육자치, 전략정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완료
	(연대사업) 학내 노동자 연대 영상물 업로드 완료
	(일상복지) 기숙사 운영관련 설문조사 공문 송부

	(전략정책) 중대중심 개편관련 정책 이행보고 완료
산하위원회	(문화위) 봄 축제 준비 중
	(성평위, 장인위) 대표자 대상 인권교육 진행 완료
	(성평위, 장인위, 인복위) 인권문화주간 진행 완료
	(인복위) 성년의날 이벤트 진행 완료
	(졸준위) 학위복 리디자인 TF 구성 완료

총: 질의있으신지? 질의 없으신걸로 하고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 3 논의안건

#### 1. 2021-1학기 전학대회 피드백

- 피드백 및 차기 전학대회 반영사항

총: 전학대회 관련된 피드백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대회 관련된 피드백 사항 네가지정도 가지고 왔다. 우선 첫 번째로는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줌 투표가 아니라 오픈채팅을 통해서 의결을 처음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 줌 투표가 오픈채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렸고 또 줌에서 오픈채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더불어 줌 투표를 활용할 경우에 의장단과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총학생회 집행부만 의결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대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오직 퍼센트 비율이기에 의결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오픈채팅이 활용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결상의 문제이다. 의결제목에 있어서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더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정 조항명이라든지 수정안 상정, 수정안, 개정안 상정, 개정안 등의 구분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던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 오픈채팅을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집계할 때는 투표종료버튼을 누른 후에 집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도 투표종료시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찬반을 바꾼 대표자분들이 계셨다. 따라서 정확한 의결종료시점에 투표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투표종료버튼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대표자의 발언권 보장 문제이다. 전학대회가 한 학기에 한번있는 공론의 기회인 만큼 발언하는 대표자의 정당한 발언이 압박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일 에브리타임에서 대표자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공격적인 글이 난무했고 이는 대표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에브리타임건과 관련해서는 2학기 전학대회를 준비하면서 중운위에서 함께 대책논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전학대회 초반에 현장에서 대표자의 발언에 있어서 전학대회 스태프의 개별 평가가 들리기도 했는데 이부분도 대표자의 발언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전학대회 의장의 개정안 상정과 찬반토론 참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학대회 의장이 개정안을 직접 상정하거나 찬반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총: 사과대회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연결이 불안정한 것 같다.

사과.부: 저희 회장님께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서 설명하자면 총학생회장님께서 전학대회 의장이기도 하시니까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 개정안 상정 또는 찬반토론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피드백이 들어왔다. 따라서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정안 상정 및 찬반토론 등에 대해서 의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회과학대학에서 나온 네 가지 피드백 모두 발언 마치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말씀드리겠다. 저희 단위에서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줌 투표가 아니고 오픈채팅투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발언 과정에 있어서 안건 내용과 상관없는 발언이 진행될 시 진행 측에서 바로 제제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정: 인문대학 혹시 저희 단운위를 지난주에 진행하지 않아서 전학대회 피드백을 혹시 다음 중운위 때 해도 되는지?

총: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방금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일단 줌투표같은 경우는 당시 설명을 드릴 때 투표종료가 눌리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투표를 종료한 시점에 캡처를 하고 수합을 했던 것인데 그게 저희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했던 것인지는 다음 전학대회전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스태프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의 개정안 상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총학생회장도 대표자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지적을 해주시면서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총학생회장이 개정안을 상정한 그 절차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개정안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비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의장이라고 해서 대표자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말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총학생회장이 대표자인 것은 맞으나 우선 전학대회를 개최한 의장 그러니까 소집한 의장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어쨌든 전학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위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표자이자 동시에 의장이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 찬반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개정안 상정에 있어서는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게 사회과학대학의 의견이다.

총: 당시 19년도 총학생회장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부총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인권위원회로 통합, 개편하자는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개정안 내용이 잘못되어있어서 비판받았던 것이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발의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맥락이라면 저는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사과.정: 19년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물론 해당 개정안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의장이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상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이고 그리고 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사실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 발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발언한 적도 없고 그냥 대표자의 일원으로써 찬반토론에 참여한 것이고 저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던 것이다.

사과.정: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근데 다만 편향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의장이 개정안 상정이나 찬반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이다. 어쨌든 저희단위에서도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총: 이걸 전학대회 전에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저도 사회과학대학내에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전학대회 의장이기 때문에 발언도 하면 안 되고 개정안 발의도 하면 안 되고 수정안 발의도 하면 안 되고 찬반토론에 참가를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단지 진행만 하는 의장을 바라는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과.정: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대학 단운위로 가져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부총: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방금 논의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표자로서 의장이 동시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찬반토론에 참여를 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모든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의장이라고 해서 해당 권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른 대표자에 비해서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의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써 회의진행 자체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안전상정을 기각하거나 이런 식이 회의의 중립성을 방해하는 것이지 어쨌든 안전이 절차에 따라서 상정 되었으면 그 상정된 안전에 따라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대표자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의장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대표자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의장으로써 어떤 독립된 자리를 추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우선 의장은 의장이라는 이유로 이미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발언에는 사실상 더 큰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 발언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다.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가지는 특별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전달해도 되는지?

총: 네

사범.정: 일단 사범대에서 첫 번째로 나온 얘기는 간혹 가다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는 총학생회장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제를 주도하셔서 제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타 학과 대표자분들이 지적하셨던 점에서 다음 전학대회가 이뤄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안전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간엄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회의 진행 시간을 단축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이다.

간호.부: 간호대 발언해도 되는지?

총: 네

간호.부: 간호대의 경우에는 진행방식에 대한 피드백은 따로 없었고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전학대회가 길어진 이유가 투표 후에 집계과정이 다소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투표 미참여자 가령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기실로 보내서 집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수는 없었

는지 여쭙고 싶다.

총: 화면에 나오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대기실로 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투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도 다시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400여명의 대표자들이 함께하는 전학대회이기 때문에 투표를 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부총: 방금 간호대에서 제시해주신 안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출석이 확인이 되면 카메라가 켜졌고 화면에 얼굴이 드러나면 바로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회의 중에서 카메라를 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아니면 잠시 동안 출석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가 대기실로 아예 보내버리면 그분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부: 네 해당 부분 단운위에 전달하겠다.

통공.부: 통일공대 전달 하나 해드리겠다. 공대는 중감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서 전학대회 피드백은 따로 받지 못했고 혹시 가능하다면 인문대랑 동일하게 다음 주에 전달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다.

총: 네 알겠다. 다른 피드백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저 개인적으로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가 의결을 진행할 때에는 캠을 무조건 다 켜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캠을 끄고 있다가 의결 중간에 캠을 켜든가 이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예 의결이 시작했을 때 캠이 꺼져있으면 그분을 대기실로 보내고 계속해서 캠을 켜고 계셨던 분들만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켜다가 켜다가 켜다가 켜다가 하시는 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진행이 딜레이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일단 경경대에서 말씀하신 절차와 제 생각이 동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제 투표 직전에 캠을 켜면 출석한 것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전에 다 확인해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거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확인 절차가 중간에 있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경경.정: 네 답변 감사하다.

총: 네 다른 피드백 있으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인문대학과 통일공대는 다음주 회의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제한학점 완화 설문조사 공유요청

총: 제가 저번 주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사정기협의체 대표자 1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 대표자 1인을 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 대표자가 1년 내내 임기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회차별로 대표자 순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부총: 제 의견은 저희가 기존에도 그랬듯이 참석이 필요할 때마다 투표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오신 분들이 또 오셨고 하긴 했지만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부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일정에 있어서 공지는 기존보다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사범.정: 사범대 해당내용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도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해당 내용 동의한다.

약학.정: 약대도 동의한다.

간호.부: 간호대도 경경대 회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총: 네 그러면 제가 내일 중으로 학사정기협의체 공식회의 일정을 학교본부와 조율하도록 하겠다. 조율이 완료되면 1차 회의 참가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학사정기협의체에서 어떠한 내용이 진행이 되냐 우선 첫 번째로 재수강 제한학점 상향조정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학점 이월제도 개편, 세 번째로 한자 졸업요건 폐지, 네 번째로 성적공개 미 이행시 패널티 부여가 있다. 회의의 양상에 따라서 안건이 추가될 수가 있겠고 안건이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좀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안건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학사정기협의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2학기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학사정기협의체에서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 다른 안건 있으신지?

사과.정: 혹시 저희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데 혹시 타 단위는 없으신지? 있으시면 종합해서 혹시 총학생회에서 중감위원장님께 전달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총: 네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송부 가능하다.

사과.정: 사실 그냥 발언일 뿐인데 알겠다.

총: 네 없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하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중운위통해 공유 요청 드리면 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토크콘서트에 정형돈도 오고 이스포츠에서는 클템도 오고 유명인사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정형돈 오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인데 중운위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셨으면 한다. 중운위 23차 회의 폐회하겠다.

사과.부: 저희 질의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전학대회 불참하고 지각, 조퇴 등 사유가 올라왔다. 혹시

해당 내용이 잘못 기입되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어디 연락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여쭙보고 싶다.

총: 저희가 일전에 확인 부탁드린 것 외에도 오기재가 있는 것인지?

사과.부: 저희가 중운위 공지방에는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의 명단은 받았는데 실제로 올라온 명단에는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다 올라왔다. 근데 그거는 중운위 내에서 확인한 적이 없는데 오기재가 되어있다.

총: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위원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셔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사과.부: 그럼 대표자들에게 회장님께 연락하라고 하면 되는 건지? 아 알겠다.

총: 단과대에서 취합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연락을 받는 것보다 일처리가 수월할 것 같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네 회의가 빨리 끝났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다.

**-산회-**